

김용택 선생님 동시에 배우는 우리말은 재미있다

(학생용 독후 활동지)

시와 만화가 만나 새로운 상상력을 키워주는 책,
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어.
너도 한번 읽어 봐.
아마 한 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을걸.
실은 말이야, 이 시를 쓴 나도
보고, 보고, 또 자꾸 보았거든.
시인 김용택

친구들과 책 내용 확인하기

▶ <참새는 걷지 않는다>



(1) 글쓴이가 참새를 본 곳은 어디였을까요?

(2) 글쓴이는 참새를 보며 어떤 상상을 했나요?

(3) <무슨 말일까?>에서 익힌 말을 직접 써 넣어 봐요.

--	--	--	--

온전히 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야. 차가 빠르게 지나다니게 하기 위해 만들었지.

--	--	--

길을 가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야.

--	--

탄탄한 곳에 발을 자꾸 굴러 올리는 소리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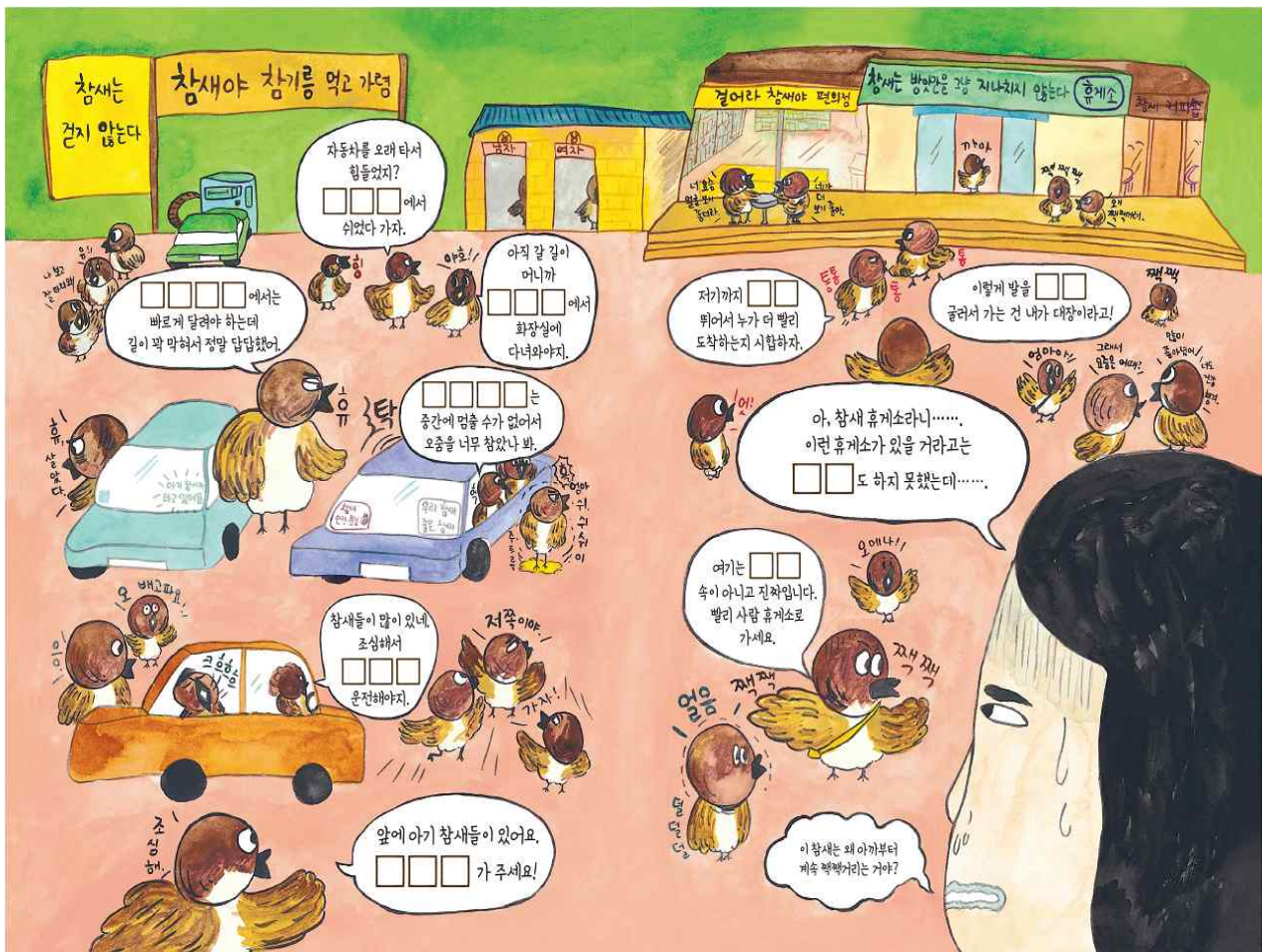
--	--

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나 사물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걸 뜻해.

--	--	--

'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않고 느리게'라는 뜻이야.

(4) 앞서 익힌 말을 바탕으로, <참새는 걷지 않는다> 만화에 나온 내용을 직접 써 넣어 봐요.



자동차를 오래 타서 힘들었지? _ _ _에서 쉬었다 가자.

_ _ _ _에서는 빠르게 달려야 하는데 길이 꽉 막혀서 정말 답답했어.

아직 갈 길이 머니까 _ _ _에서 화장실에 다녀와야지.

_ _ _ _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오줌을 너무 참았나 봐.

참새들이 많이 있네. 조심해서 _ _ _ 운전해야지.

앞에 아기 참새들이 있어요. _ _ _가 주세요!

저기까지 _ _ _ 뛰어서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시합하자.

이렇게 발을 _ _ _ 굴러서 가는 건 내가 대장이라고!

아, 참새 휴게소라니..... 이런 휴게소가 있을 거라고는 _ _ _도 하지 못했는데.....

여기는 _ _ _속이 아니고 진짜입니다. 빨리 사람 휴게소로 가세요.

▶ <떡갈나무 잎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>

(1) 시에서 떡갈나무 잎이 피고 꼬꼬리가 울면 텃밭에서, 무슨 싹이 날까요?

(2) 자고 있는 나를 꼬꼬리가 산에다가 버렸습니다.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잤나요?

(3) 구름 속에서 만난 피라미들과 어디로 뛰어내렸나요?

(4) <무슨 말일까?>에서 익힌 말을 직접 써 넣어 봐요.

씨, 줄기, 뿌리 따위에서 처음 돋아나는 어린잎이나 줄기야.

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에 있는 밭을 말해.

--	--

'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'의 뜻이야.

--	--

'-두다' 구성으로 쓰여.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이야.

--	--

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려고 붙이는 말이야.

(5) 앞서 익힌 말을 바탕으로, <떡갈나무 잎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> 만화에 나온 내용을 직접 써 넣어 보요.



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. 어? 너 턱에 수염이 _ _ 시작했다네.

여드름도 _ _. 근데 어디 가는 거야? 으아아아악!

집 가까이에 있는 _ _에서 야채를 길러 먹기로 했는데 길을 잃었네.

오늘 _ _에 같이 당근 심기로 하고서 왜 안 오는 거야.

점심밥으로 배춧잎에 _ _이슬 촉촉하게 발라서 먹는 거 어때?

넌 누구니.....날 왜 여기 _ _ 내려놓은 거야. 으앙, 무서워.

배를 여기에 세워 _ _ 놀까요?

비가 오니까 손전등도 꺼 _ _ 같이 놀아요!

헤헤. 수염이 꼭 _ 처럼 돋았어.

그래, 푸룻푸룻한 게 _ 이 나는 것 같다. 참 예쁘네.

▶ <내가 잘했을까요>

(1) 시에는 총 두 마리의 동물이 나옵니다. 어떤 동물일까요?

(2) 민달팽이는 어디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나요?

(3) 나는 민달팽이를 왜 손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로 옮겨주었나요?

(4) <무슨 말일까?>에서 익힌 말을 직접 써 넣어 봐요.

--	--	--	--

어디를 거치거나 통과하여 간다는 뜻이야.

--	--	--	--

공간이나 시간, 상황 따위의 바로 가운데를 뜻해.

--	--

힘들이지 않고 가볍게라는 말이야.

--	--	--	--

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매우 마음을 쓰는 모양이야.

--	--	--	--

'움직임 따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조용'의 뜻이야.

(5) 앞서 익힌 말을 바탕으로, <내가 잘했을까요> 만화에 나온 내용을 직접 써 넣어 봐요.



이보세요! 찾길을 그렇게 _ _ _ _ 어떻게 합니까?

어쩌다 보니 찾길 _ _ _ _ 로 와 버렸네. 이걸 어쩌지?

허억! 저 달팽이가 찾길을 _ _ _ _ 있어.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!

길 _ _ _ _ 에서 달팽이를 보다니.

다른 달팽이가 듣지 않게 나한테만 _ _ _ _ 얘기해 봐.

너무 슬픈데 네 어깨에 _ _ 기대도 될까?

_ _ _ _ 운전해야겠다. 차도 많고 달팽이도 많아서 복잡하네.

얘들아! _ _ _ _ 다녀야 돼. 뛰지 말고!

이것 좀 _ _ 들어 줄래?

으악, 무거워. 싫지만 티 나지 않게 _ _ _ _ 해야지.

책을 읽은 느낌 나누기

활동 1. 우리말 카드 놀이

《김용택 선생님 동시에 배우는 우리말은 재밌다》책 맨 뒤에는 직접 잘라서 쓸 수 있는 '우리말 카드'가 들어 있어요. 우리말 카드를 오려,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이랑 우리말 카드 놀이를 해 봐요.

인원

6명 (최대 10명)

준비하기

우리말 카드를 오려서 카드에 있는 낱말을 활용해 문장을 만들어요.

놀이 방법

①만든 카드 중에서 20장을 골라요.

②순서를 정해요.

③첫 번째 순서인 사람이 직접 만든 문장을 말해요.

단, 문장을 만들 때 사용한 낱말은 빼고 말해야 해요.

예) 낱말 - 기대았다

문장 - 나는 버스 창가에 기대았아서 꾸벅꾸벅 즐았다.

발표 - 나는 버스 창가에 "땡땡땡땡"서 꾸벅꾸벅 즐았다.

④문장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손을 들고 빠진 곳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는지 얘기해요.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해요.

⑤빠진 단어를 맞힌 후에, 문장을 발표한 사람과 같은 낱말로 문장을 만든 다른 사람이 있다면, 만든 문장을 발표해요.

⑥발표자와 같은 낱말을 사용한 문장이 있는 사람과 발표자는 해당 카드를 다 사용한 카드로 분류해요.

⑦손에 남은 카드가 하나도 남지 았은 사람의 수가 3명이 되면 놀이가 끝나요.

⑧제일 먼저 손에 든 카드를 았았 사람은 우리말 대장!

※놀이가 끝나는 기준 : 6명(손에 남은 카드가 하나도 았은 사람 수 3명), 7명(3명), 8명(4명), 9명(4명), 10명(5명)

활동 2. 나는 어린이 시인

활동 3. 나는 어린이 만화가